

지역 소식통



익산시 하영전기관리공사 저소득층 무료급식 200만원기탁

익산시 임상동에 소재한 (유)하영전기 관리공사(대표 황호필)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위해 써달라며 7일 익산시에 200 만원을 기탁했다.

시정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황호필 대표는 "단체 등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하영전기관리공사는 2013년 2014년도 겨울철 김장 담그기를 위해 지원을 한바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농협 익산시지부, 결의대회 개최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오석원)는 7일 농심전파를 위한 농민신문 구독운동 전개와 종합업적 1위 달성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익산시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농업인이 활짝 웃는 농협민들기 운동 전개와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D) 및 구제역 차단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하고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을 목표로 각 팀별 조기 추진 태세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석원 지부장은 참석한 직원들에게 지역사회 기여원칙 등 협동조합 이념을 교육하고 각종 사업추진 확대를 통하여 범 농협 시너지를 제고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반부패·청렴실천 결의 및 서약식 개최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장영철)는 7일 익산역 회의실에서 2급이상 간부 3급 역·소장, 본부스텝 등 직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청렴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인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코레일 위상에 걸맞는 부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코레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전방위적으로 시행했다.

결의식에 참석한 전 직원은 결의문 낭독 및 서약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인사총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알선·청탁·금품수수 및 이권 개입을 통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시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견학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주시 세리크바이 주 천연자원환경국 오라 비세비예프 국장 일행이 7일 군산폐기물매립장을 방문해 위생매립 시설 등을 둘러봤다.

한국환경공단의 초청으로 방문한 이들 일행은 폐기물 관리 현대화 방안 수립을 계획 중인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시가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시설 및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

아티라우시는 약 27만 명이 거주하며 산업단지가 많고 신규 위생매립지 건설 예정부지가 산간이 아닌 평지로 군산시 폐기물매립장과 매우 흡사하다.

위생매립지 시설 및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작업공정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선별작업, 간이 소각시설 가동상황 등을 견학하며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의 선진 시설과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시 방문을 통해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이 더욱 견고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항, 물동량 전년대비 6% 증가

컨테이너 27%증가 등 1960만4000톤 처리 전국 29개 무역항 중 10위

한국자립 자동차 수출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중량화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이 전년대비 6% 증가한 1,960만4,000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표에 따르면 군산항 물동량은 컨테이너 5만 6,564TEU(전년대비 27% 증가), 자동차 19만9,398대(전년대비 3% 감소) 등 총 1,960만4,000톤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29개 무역항 중 10위이며 최근 5년간 군산항 물동량은 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개설된 군산~닝보~상해항로와 위해~천진~군산~청도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신규 물동량 유입에 따른 것이며 이 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6월 해수부의 연안 환적자동차에 대한 카보타지 적용 방침을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 항만 유관기관 및 기업체가 합심해 백지화 시킴으로써 완성차 수출입 물동량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군산~청도, 군산~동남아 항로 개설을 통해 컨테이너 7만TEU,

환적자동차 유치를 통해 완성차는 180만대, 싸이로 및 유연탄 부두 건설 등 항만인프라 구축과 신규 화물군 발육을 통해 벌크화물 1,750만톤을 유지하는 등 군산항 개항 이래 최초로 2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5월 해외현지 포트세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꾸준한 인센티브 지원(2017년 15억5천만원)과 군산항 화물유치단을 구성해 도내는 물론 충남과 수도권 기업체를 방문해 일대일 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경, 해양시설 특별점검 실시

군산해경이 8주간 해양시설 점검에 돌입한다. 군산해경서는 지난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기름·유해물질 저장 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3년째를 맞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그간 해양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양오염 위태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고예방과 국민 참여 확대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점검에서 해경은 300미 이상의 기름·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미반은 관리자의 자율적 점검에 맡기며 일부 표본시설을 골라 별도 확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 오염물질 기록부 관리실태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의무점검 이행실태 ▲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서 준수여부 등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업체 김대중컨벤션센터 선정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스코 운영

군산시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민간위탁 적격 업체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선정했다.

지난 3년간 (주)코엑스가 위탁 운영한 지스코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3개 기관이 경쟁을 벌인 결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최종 선정돼 오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스코를 운영하게 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장 및 컨벤션 시설의 관리 운영과 함께 각종 전시회, 박람회, 회의, 이벤트 등을 발

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력의 증진적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신환섭 사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난 12년간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지스코 역시 앞으로 3년 동안 광주와 군산을 조화롭게 상호 보완해 호남권 MICE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진수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새로운 위탁업체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함께 지스코가 전북과 군산 MICE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스코는 지난 3년간 UCLG 행사 등 여러 국제행사를 포함 약 350여개 행사에 20여만 명이 방문해 풍·화·격 도시로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제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상호협력 위한 간담회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용섭 원광대학교 교수(나노바이오 대표) 등도 참석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창업 희망자들이 대학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꿈을 펼치고 대학과 정부

가 이들을 지원하며, 대학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제정의 건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중이다"고 말했다.

김도중 총장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분교 활동 △진교생 창업 교육(나노바이오 대표) 등도 참석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간담회에서 "많은 창업 희망자들이 대학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꿈을 펼치고 대학과 정부

/익산=장양원기자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 호원대·농어촌공사 군산지사와 협약 체결

군산시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7일 호원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 삶의 모습을 전시키고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추억트랙과 복지를 위한 피터온, 중앙년층의 취미 동아리 공간, 재능개발을 위한 두드림센터를 설치해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건강상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스포츠마사지, 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호원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사업 프로그램 발굴과 재능기부 및 봉사를 위

해 노력하고, 대야면과 활성화사업 추진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호원대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의견제시 및 홍보 등을 협조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호원대와 대야면민의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게 된다.

한편, 육구중학교 학생회 임원들은 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된 18만원 상당을 대야면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전달했으며, 주민들 역시 대야면 발전기금으로 7천만원을 모금하는 등 주민 주도의 선도적인 운영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끊임없는 환자중심 강조 원광대병원, 친절코디네이터 선발·양성

1·2기 활동 중인 23명 외 3기 7명 추가 모집 완료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심화되는 의료계의 경쟁과 소용돌이치는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함없는 초심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환자중심병원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고객편의를 위한 친절 서비스와 환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굳게 하기 위해 원내 친절코디네이터들을 선발, 양성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례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3일까지 3기 원내 친절코디네이터 모집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1기, 2기에 선발되어 활동 중인 친절코디네이터 23명 외 7명을 추가 모집했다.

원광대병원에서는 선발된 친절코디네이터들을 교직원 친절마인드 함양과 병원 친절 문화 향상을 위한 토대로 양성하고자 원내의 교



육, 외부 강사 초빙 교육, 국내 및 해외 연수 등을 통한 자질 함양에 심혈을 쏟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환자중심병원의 위상에 맞는 친절 의료서비스 향상과 병원 친절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전문 인력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친절 코디네이터들로 양

성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기본은 환자 및 고객들을 위한 친절함이다. 기본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선발 해 친절 코디네이터들로 양성해 나가는 원광대병원의 노력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시정발전 위한 도의원 간담회 개최

익산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도의원,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한 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로 사업 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정책 추진 등 시정운영 중점사업 추진계획과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익산C~금마만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도의원들은 2017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필요성을 공감하고 격의 없는 대화속에 다양한 의견제시와 질의답변을 했다.

시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현안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시민의 삶에 밀착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익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4일까지 모집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5명, 공공근로사업은 33명을 선발해 3~6월, 4~6월까지 각각 운영한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압대상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장양원기자